

2023년 12월 10일. December 10, 2023  
금문교회 제2대강절/성서주일 주일예배. GGPC 2<sup>nd</sup> ADVENT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가르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 And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to which indeed you were called in one body. And be thankful. 16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teaching and admonishing one another in all wisdom, singing psalms and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thankfulness in your hearts to God. 17 And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do everything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골로새서 Colossians 3:15-17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교회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어둔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 세상에 평강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중에 열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사도행전 Acts 20:32-38

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And now I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the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33.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I coveted no one's silver or gold or apparel.

34.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You yourselves know that these hands ministered to my necessities and to those who were with me.

35.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In all things I have shown you that by working hard in this way we must help the weak and remember the words of the Lord Jesus, how he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36.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And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knelt down and prayed with them all.

37.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And there was much weeping on the part of all; they embraced Paul and kissed him,

38.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being sorrowful most of all because of the word he had spoken, that they would not  
see his face again. And they accompanied him to the ship.

오늘 우리는 2023년 제2대강절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2023년  
성서주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어서 “만국성서주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899년 5월 7일, 성령강림주일에 처음 지켰습니다. 1948년부터는  
세계성서주일에 맞추어 12월 둘째주일에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서주일은 1. 성경말씀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2. 아직 성경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성경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2023년 현재 90여 개 나라에 143개 언어로  
360만부 성경을 제작, 보급했습니다.

1882년 중국 동관교회에서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목사님과 매킨타이어가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이성하 등과 함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를 서북방언으로 출간했습니다.  
최초의 한글성경입니다.

곧 이어 요한복음이 출간되었습니다. 1887년에는 신약전서를 <예슈성교전서>로  
출간했습니다. (사진)

1885년 인천을 통해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59-1926) 선교사와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1) 선교사가 입국한 것을 보면, 선교사 입국  
이전에 조선은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비록 쪽복음이나마) 이미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선교역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입니다.

존 로스(John Ross)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출신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중국 (China)  
동북지방에서(North-East Provinces) 선교하면서 선양(Shenyang)의 동관교회(Dongkwan  
Church)를 개척목회했습니다. 최초의 한글성경번역자이며, 한글 띄어쓰기를 맨 처음 도입한  
사람입니다. 그는 한국어 학습서(1877)와 한글 역사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선양 지역에서 신학교 강의 하면서 수 차례 동관교회와 그 부속 성경번역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사진 몇 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번역하여 한국선교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디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전에 한 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메인 토마스(Jermain Tomas,  
1839-1866) 선교사입니다.

이하 토마스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는 고신뉴스(2022. 12. 7)에서 인용합니다. 기자는  
김재현의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과, 박용규의 <한국기독교교회사>를  
참고했습니다.

1863년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 받아 중국 상해에서 사역했습니다. 사역 4개월 만에 그의 아내가 천국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고 선교사직을 버리고 산둥성에서 통역관으로 일했습니다. 거기서 조선에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865년 9월부터 12월까지 황해도 장연군 자라리(백령도)에 머물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성경을 섬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866년 1월 12일, 그의 부친이 받아 본 그의 편지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목이 잘릴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그는 북경에서 사역했습니다. 1866년 8월 16일, 미국인 프레스톤이 소유한 상선 제너럴 셔먼(General Sherman) 호를 타고 조선에 입국했습니다. 평남 용강의 주영포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어로 된 성경책 몇 권을 가지고 이 배의 통역자 및 안내자로 배를 탔던 것입니다.

평양감사 박규수는 그 배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겼고, 제너럴 셔먼 호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그때 27세였습니다. 불타는 배에서 헤엄쳐 나온 그는 지니고 있던 중국어성경 한 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병졸 박춘권에게 성경을 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에 박춘권은 평양 장대현교회의 처음 신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토마스가 죽은 후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주워 읽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중에 안주교회 영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조카 이영태도 평양숭실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 성경번역의 주역인 레이놀즈(William D. Reynolds, 1867-1951. 한국명 "이눌서")를 도와 성경번역에 참여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General Sherman)가 불탈 때 현장에 열 두 살 최치량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성경 세 권을 가져왔습니다. 박영식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발랐습니다. 최치량은 기독교인이 된 후 그의 집에 가서 그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후 박영식의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을 뜯어 벽지로 발랐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그의 중국식 이름은 탁마사, 혹은 최난헌이었습니다. 대동강변에서 조선 관군이 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던지며 조선 땅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부탁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국 땅과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바쳐진 것입니다.

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And now I commend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is able to build you up and to give you the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지금.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를 떠나는 고별설교(farewell sermon) 중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에베소교회 장로들을 주(하나님)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서주일을 맞아, 특별히 감사하게도 바울의 고별설교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바울 같은 훌륭한 목회자가 떠난다고 해도, 교회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한,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알고, 이제 장로들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는 세상에서 기업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양무리 중에서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양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33.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I coveted no one's silver or gold or apparel.

바울은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목회를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And constant friction among people who are depraved in mind and deprived of the truth, imagining that godliness is a means of gain.  
디모데전서 1 Timothy 6:5

초대교회는 물질문제에 거리를 두는 것을 "영적 권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Now the full number of those who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soul, and no one said that any of the things that belonged to him was his own, but they had everything in common.  
사도행전 Acts 4:32

34.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You yourselves know that these hands ministered to my necessities and to those who were with me.

바울은 텐트(tents)를 만들어 생활했습니다. 그와 및 동행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을 채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And because he was of the same trade, he stayed with them, and worked, for they were tent-makers by trade.  
사도행전 Acts 18:3

이렇게 자기 자신과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체적인 정황입니다.

35.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In all things I have shown you that by working hard in this way we must help the weak and remember the words of the Lord Jesus, how he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모든 일에 교회에 "모본"(models)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도 교육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사람은 수고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한 토막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For even when we were with you, we would give you this command: If anyone is not willing to work, let him not eat.  
데살로니가후서 2 Thessalonians 3:10

약한 사람을 돕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일하여 자기와 동행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입니다.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제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주는 것"으로 정의해 주십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Give to the one who begs from you, and do not refuse the one who would borrow from you.  
마태복음 Matthew 5:42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1.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지만, 2. 결정적인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라고 해보아야, 그게 어디 완전합니까?

보십시오. 결국 바울의 생활은 예수님을 따라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Be imitators of me, as I am of Christ.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11:1

36.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And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knelt down and prayed with them all.

이 말을 한 후.  
바울은 이제 고별설교를 마쳤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 장로들과 함께, 어쩌면 바울 일행도 포함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37.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And there was much weeping on the part of all; they embraced Paul and kissed him,

다 크게 울며.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정성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목을 안고.  
헤어지기 싫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입을 맞추고.  
인사입니다.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38.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being sorrowful most of all because of the word he had spoken, that they would not  
see his face again. And they accompanied him to the ship.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바울은 다시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얼굴로 만나지 못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근심하고.  
이별하는 자리에서 모두 근심이 컸습니다.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의 전송을 받았습니다. 배가 떠날 때까지.

적용합니다.

내 부모님께서 나를 낳고 기르셨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어김없이  
아침과 저녁에 가정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는 삶으로 본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1.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라. 2. 성경 열 장 읽으라.

아버지께서는 100세 향수하셨습니다. 그 뜻은 내게 아버지가 그토록 오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내내, 나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보면 나는 상당히 어린  
시절부터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계셨습니다.

나는 부모님께서 평소 읽으시던 성경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수시로 그 말씀을 읽습니다. 바로 그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정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일학교 때 아버지께서 설교하시던 것도 기억에 있습니다. 요즘 시편을 깊이 묵상하는데, 시편 곳곳에 아버지께서 묵상하시던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듣습니다.

목회자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사역해야 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벌써부터 나는 교회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부탁드려야 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이제부터라도 나는 교회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길 때, 성경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당부할 내용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항상 성경말씀 읽으며,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목양지 에베소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당부입니다. 교회가 들고 깨달아, 앞으로 사역의 방향을 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친히 주장하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 같은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마땅히 서야 하고 가야 할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별설교의 마지막에 이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중에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는 2023년 제2대강절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